

한우 자조금



특집

도마위 오른 '품질고급화 장려금' 폐지문제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천상천하 韓牛독존' TV 광고 시작

프로야구 열기 타고 한우 알린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육단계 주의사항

06

2009 • June

“임시방편 정책이 농가 사육의지 꺾어” 원성 빗발

선진화위 “시장 가격결정 왜곡” 개편 방침에 농가 반발

현장 “납득할 수 있는 대책 먼저 마련돼야” 목소리도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최근 보조금 개편과 관련해 ‘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 폐지’ 방침을 밝혔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시장의 가격결정을 왜곡하는 보조는 폐지 또는 축소하고, 체질강화를 위한 보조는 신설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질병근절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보조금폐지’가 농업선진화?

정부는 당초 ‘송아지 생산안정제’ 역시 보조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으로 폐지하려 했지만 한우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당분간 존치하기로 한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또한 2012년부터는 농가소득안정제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어서 결국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우협회를 비롯한 업계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경우 현장의 농가들에게 최소 생산비를 보장함으로써 한우산업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정부에 이를 존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 하고 있다.

시행 반년만에 폐지, 생산비압박 가중될 듯

‘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2008년 5월 FT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대외 개방에 대비해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으로 마련되어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다. 하지만 시행 반년도 지나지 않아 내년부터 폐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순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생산비 상승으로 경영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지원이 줄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가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한우의 경우 1+등급이상의 거세우가 장려금지원 대상이 된다. 1+등급은 10만원, 1++등급은 20만원이다.

돼지의 경우는 육질 1+등급을 받고 혈청검사 결과 돈 열항체 양성율이 80%이상인 생산자에게 두당 1만원씩을 지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한우 97억 7천만원, 돼지 40억 5천만원 총 138억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폐지하는 대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내년에 약 6백억의 예산으로 번식농가 지원, 질병청정화를 위한 사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시방편책에 대한 불만고조

한우농가들은 갑작스러운 장려금 폐지 소식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생산비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장려금 폐지 소식이 농가들에게는 결국 미산 쇠고기 수입과 FTA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는 부정적 이미지로 남으면서 이에 대한 원망이 고스란히 정부를 향하고 있다.

선대책 마련이 우선

한편으로 만약 폐지될 것이라면 구체적인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상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 밝혀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농가를 위하고 한우산업을 위한 목적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겠지만 일관성없이 움직이는 정부 정책의 가벼움에 한우농가들은 불신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남 하동 | 정호영 한우자조금관리위원_ 전국한우협회 경남도지회장

'품질장려금' 여론 잠재우기 임시방편책이었나



현재로 볼 때 폐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농가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기 전략으로 만들어진 사업을 단 1년만에 폐지한다는 것은 농가로서 당혹스럽다.

고급육 생산이 활성화되고 소비시장에서 한우의 소비폭이 더욱 확대된다면 결국 번식농가들에게도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가기 마련이다. 이것을 단순히 비육농가들에게 편중된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

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사업을 무한정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FTA 대책으로 나온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만큼 시행 6개월만에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결국 정부에 대한 한우농가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이 제도가 이렇게 폐지된다면 결국 당시의 여론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누구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다는 기준에서 폐지와 유지를 논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충남 당진 | 김충완 한우자조금관리위원_ 전국한우협회 충남도지회장

한우 육종개량 지원할 수 있는 대안 제시돼야



어려운 현실에서 농가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좋아 할 농가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농림수산물부 관계자의 말로는 내년에 200억 이상의 예산으로 한우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반대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어떻게든 한우산업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현재로서 농식품부도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큰 방향을 잡았다면 속히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농가들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농가들에게 양질 조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육성기에 조사료 급여는 소의 생장에 무척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내 사정상 원활한 공급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나서 한우농가들에게 양질조사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면 결국 한우고급육 생산에도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또 하나, 한우의 경쟁력은 육종개량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좋을 것이다.

전남 여수 | 강도용 한우자조금관리위원

쇠고기시장 개방 속 한우농가 경쟁력 약화 우려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연이어 FTA 체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농가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농가의 경쟁력은 결국 품질 강화일 수 밖에 없다.

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사업이 실제 농가의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일종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본다. 지역의 일부 한우브랜드 경영체에서 도입했던 것도 이런 동기부여를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였고,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바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원 금액의 크기를 떠나 전체 한우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굳이 품질고급화장려금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좀 더 지켜보고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 폐지를 논해야 할 것이다. 굳이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면 현 사업을 폐지하기보다는 추가예산으로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경북 예천 | 윤호식 한우자조금관리위원

정부, 사료값에 허덕이는 농심 헤아려주길



고급육 생산에 매진해 경쟁력을 키우려는 농가의 의지를 꺾는 것이라 본다. 현재도 지자체와 일선 축협 등에서 장려금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장려금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농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사업의 실효성은 확인된 것인데, 정부에서는 아직해보지도 않고 이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한우농가의 한사람으로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잔뜩 높아져 있는 사료 값에 허덕이고 있는 농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쉽게 폐지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농가들은 정부의 가벼움에 실망하게 될 것이고, 이런 정부를 믿고 과연 한우사육을 계속해야 할지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

우리 축산업의 미래는 축산농가의 손에 달려있다. 이를 보호 육성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게 농정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경기 용인 | 조성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_용인축협장

품질장려금, 장기적 안목에서 유지시켜 나가야



우리나라 등급제는 품질고급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경락가격에서 등급별 가격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시장에서 일본만큼 확실히 차별화된 가격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고급육 생산이 생산 단계에서 그만큼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도 하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사전 검증된 것을 선별해 출하하는 상황에서 고급육이 50%를 간신히 넘기고 있는 우리의 경우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된다. 고급육 생산이란

것이 단기간인 1~2년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정부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가축의 개량이나 사양관리 외에도 다양한 요건이 충족될 때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농가들의 의지와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농가들의 이런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동기부여의 성격이 강하다. 농가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고급육이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차별화 될 때까지 장기적 안목에서 이를 유지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6월부터 ‘천상천하 韓牛독존’ TV 광고 시작 국민배우 최불암씨 한우 전도사로 활약

2009년 한우자조금 광고 ‘천상천하 한우독존’ 편이 제작돼, 6월부터 TV를 통해 방송된다. 이번 광고는 사육, 유통, 소비단계를 아울러 한우가 최고의 음식이라는 것을 알리고,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등을 함께 홍보했다.

이번 광고의 새 모델은 대한민국 대표 아버지의 표상인 최불암씨로 발탁되었으며 앞으로 6개월간 한우 홍보를 담당할 계획이다.



‘한우사랑’ 대학축제를 달궜다 고대 · 한양대 축제서 기부 · 장학금 마련 이벤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고려대, 한양대 학생회와 함께 축제 이벤트를 진행해 대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우자조금은 5월 19일 고려대 학생회와 공동으로 ‘한우 주먹밥 만들기’를 진행했으며 한우, 아채 등을 섞어 고마운 주변인을 떠올리며 주먹밥을 만들고 자율적으로 기부금을 마련해 장애 아동 단체 승가원에 전달했다. 또 22일에는 ‘한우사랑 불고기 파티’를 진행했다.

한양대에서는 축제 행사로 주점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한우사랑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한편 한우요리를 통해 식객을 가리는 경합을 펼쳤다. 매년 축제 전통 이벤트로 요리대회를 개최해 온 한양대는 올해 미국산 쇠고기 재개방에 이어 계속되는 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먼저 한우를 바로 알고 한우 농가를 기억하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대학생 대상 이벤트와 같이 청소년 행사지원사업으로 먹거리사랑 시민연합과 공동으로 ‘한우사랑, 나라사랑 캠페인’을 진행한다. 전국 2천여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통해 농어촌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을 공모해 한우산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프로야구 열기 타고 한우 알린다

한우협회, 롯데 선수단에 한우 선물세트 증정



전국한우협회는 '기업체연계홍보행사' 사업에 스포츠 마케팅을 접목해 한우를 홍보한다.

지난 5월 31일 첫 번째로 롯데자이언츠 야구단을 찾은 남호경 회장과 임관빈, 우영기 대의원은 야구 관람객이 보는 가운데 로이스터 롯데 감독에게 한우고기를 전달

하고, 부상중인 조성환 선수에게 한우사골을 증정했다.

협회와 자조금은 30여명의 '한우 응원단'을 구성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6월 14일 대구구장에서 삼성과 한우데이 행사에 이어 전체 야구 구단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드라마 PPL 통해 한우 홍보효과 높여

'씨티홀' '결혼못하는 남자' 등 한우 간접광고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자조금 사업인 'TV 드라마, 영화 PPL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협회는 SBS TV 드라마 '씨티홀'에 한우판매인증점인 '한우방 정육식당'에서 드라마 촬영을 마쳤으며 6월 15일

부터 KBS 2TV에서 방송되는 '결혼 못하는 남자'의 사전 제작발표회에 한우를 지원해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협회는 앞으로도 한우판매인증점과 한우의 우수성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간접광고를 통해 한우의 강점을 계속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드라마 PPL은 얼마전 종영한 '내조의 여왕'에 간접광고한 제품이 큰 수혜를 보면서 직접광고 이상의 효과를 거둘 정도로 마케팅의 주효한 전략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한우도 드라마를 통해 민족문화이자 최고급 음식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우 캐릭터 기념품 공모

한우자조금은 지난해 말 신규로 한우 캐릭터를 개발함에 따라 기존 한우 캐릭터 저금통을 대신할 기념품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무국은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지 입찰공고를 통해 7월 경 제작완료하여 시군지역 소비 홍보, 11월 1일 한우먹는 날 등에 한우 홍보 기념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우고기 사면 경품 드려요~” 쇠고기이력추적제 소비자 홍보 행사 실시



▲ 지난해 한 매장에서 실시한 '쇠고기이력추적제' 홍보행사

자들이 직접 한우를 구매하는 대형할인마트에서 6월 22일 시행일을 전후해 이마트, 축산물등급판정소, 농림수산물부와 공동으로 쇠고기이력추적제를 홍보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여성잡지 7개지 광고를 통해 한우고기 구입시 개체이력번호 확인법 등을 알림으로써 국내산 쇠고기에만 적용되는 쇠고기이력추적제를 알리고, 그 중 시장우위에 있는 한우를 더 부각했다.

협회와 자조금측은 지난해 7월부터 전체 음식점에서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제와 함께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시행될 경우 한우 판매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한우가격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이후 폭락했다가 최근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6월 4일 한우 지육 kg당 가격이 15,704원을 기록했다.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은 6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쇠고기이력추적제와 함께 한우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홍보에 나섰다.

협회는 '소비자 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을 통해 소비

과천 축산물 직거래장터 '바로마켓' 야간에도 개장 주2회 확대... 20%이상 저렴해 큰 인기



과천 서울경마공원 안에 '바로마켓'은 믿을 수 있는 우리나라 농축수산물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다. 마트보다 20~30% 정도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 개장해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6월부터 8월말까

지 야간에도 개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4일과 11일은 시범적으로 개장시간만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고 17일부터 주 2일로 시행된다. 단 농특산물 판매는 오후 9시에 종료하고 취식코너만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축산물 이동판매차량도 17일부터

수·목요일에 집중해 운영하고, 월·화요일에는 상설판매장인 안테나숍을 운영할 예정이다.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은 한우, 돼지고기 등을 시중가보다 20~30% 할인판매하면서 주부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장에서 바로 구입해 취식이 가능해 인기가 높다. 한우자조금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직거래판매에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바로마켓'은 야간개장에 맞춰 다양한 문화공연도 펼쳐진다. 매주 수·목요일 오후 7시30분~10시 사이에 사물놀이, 라이브 콘서트, 마술쇼, 영화 상영 등 무료 공연이 개최된다.

한우 우수성 알릴 아이디어를 찾아라! 일반·대학생 대상 제3회 한우문화공모전 개최



▲ 2008년 한우문화 공모전 수상작

전국한우협회는 지난해 실시했던 한우문화공모전 사업을 진행한다.

협회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찰공고를 실시해 공모전 대행사를 선정했으며, 대행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문 및 잡지광고에 사용될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공모할 예정이다.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은 한우문화공모전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일상생활에서부터 한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2007년 대학생 신문광고 공모전으로 시작해 2008년에는 신문, 잡지광고와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 바 있다.

가족 사연 보내주면 한우 외식비 쏜다 한우 114 사이트 통해 '맛집 나들이' 이벤트

www.hanwoo114.co.kr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우 소비자 정보 사이트인 한우114(www.hanwoo114.co.kr)를 통해 사이트내 회원을 대상으로 '웰빙맛집 가족나들이' 라는 주제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우114 사이트내 회원을 대상으로 한우 맛집 가족나들이를 가이만 하는 사연을 접수받아 나들이 비용 및 한우 선물세트를 증정한다.

한우114는 소비자들이 한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축한 사이트로 한우역사, 한우구별법, 한우판매인증제, 한우요리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대박난 한우식당 노하우 배우자 ‘제1회 성공한우전문점 벤치마킹 투어’ 교육 성료



용 메뉴 연구, 이력추적제 육가공장 견학, 한우 즉석양념소스, 명이나물 절임류 조리 등 한우전문점 경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현장 교육이 실시되어 음식점 대표들의 호응을 받았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전문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제1회 성공한우전문점 벤치마킹 투어’를 실시했다.

지난 5월 25~26일까지 1박 2일로 열린 이번 교육은 구이 중심인 한우전문점에서 다양한 한우조리법을 교육함으로써 판매방식을 다양화하고 한우전문점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총 43명으로 구성된 한우전문점 대

표들은 즉석마늘양념 한우갈비로 소문난 경북 안동의 ‘동부한우갈비’, 한우정육식당 대구의 ‘두근반세근반’, 한우국밥으로 유명한 대구 ‘온천골’, 1인분 9천원인 즉석양념 한우구이 대구 ‘남선옥’,辛한우물회 대구 ‘소뿔따꾸’를 1박 2일동안 방문해 조리시연을 경험했다.

특별 강연으로 한우 준선호부위 활

행사를 주최한 박선빈 차장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쇠고기이력추적제 전면실시로 한우음식점, 직거래형 정육식당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한우 소비확대를 위해 한우전문점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인 경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오는 7월 중에 2차 벤치마킹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 지】

성공한우 음식점이 되는 길 「제1회 한우전문점 경영 컨설팅 교육」 안내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전문점의 경영개선을 통한 한우소비 촉진을 위하여 「제1회 한우전문점 경영 컨설팅 교육」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한우자조금이 후원한다.

- 참가대상 : 일반 한우음식점, 한우전문점을 시작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 교육일시 : 2009년 6월 25일(목)
오전 9:40 ~ 오후 5:30
- 참가신청 : 2009년 6월 18일(목)까지 선착순 100명
- 참가비 : 무료(사전 참가 신청자에 한하여 중식 제공)
- 교육장소 :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2층(컨벤션홀2)
02-2222-3811
(서울지하철3호선 학여울역1번출구)
- 교육일정
 - 한우 준선호부위활용 기술 (축산물위생교육원 장영수 교수)
 - 한우양념소스와 조리 (전라도음식문화연구원 박중현 대표)
 -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및 축산물등급제 (축산물등급판정소 이력사업본부 이원복 본부장)
 - 한우전문점 설비와 기물 활용법 ((주)태흥설비 송형필 이사장)
- 참가신청문의 : 02-518-3632
월간외식경영 기획마케팅팀

한우인증점 원산지표시제 홍보행사 이모저모



강릉 | '구라미 한우촌' 홍보행사(5.20)



논산 | '대둔산 양촌한우타운' 홍보행사(5.23)



찾아가는 홍보로 대도시 한우판매인증점 유치에 주력 2009년 2차 한우판매인증점 모집

2009년 2차 한우판매인증점을 모집한다. 사업을 담당하는 전국한우협회는 7월 중에 협회 시·군지부와 도지회를 통해 인증 대상업소 추천 및 신청서를 접수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통해 한우판매인증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협회는 현재 총 125개점으로 운영중인 한우판매인증점을 확대하기 위해 한우 전문점을 직접 방문해 안내 리후렛을 직접 배포하는 한편 수도권, 광역시, 도청소재지 등 대도시 중심의 인증점 유치를 위해 인증점 홍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2차 한우판매인증점 세부일정 안내

- 7.6~ 7.24 협회 시·군지부(도지회) 인증 대상업소 추천 및 신청서 접수
- 7.27~7.31 서류심사
- 8.3~8.21 현장심사
- 9월중 인증심사위원회 심사, 인증점 선정 발표회



현장실습교육_ 한우농장 방문 사양관리 현장교육 실시

완도 | 5월 16일

완도 한우농가 44명은 영암 '금성농장'을 방문해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했다. 협회 완도군지부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농장 현장을 방문해 사육환경 돌아보고, 사료급여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남양주 | 5월 19일

남양주 한우농가 65명은 가평 우전목장(이병환씨 농장)을 방문, 교육을 실시했다. 전국한우협회 남양주시지부는 한경대학교 이도영 교수와 함께 농장을 방문해 축사, 번식우·비육우 관리요령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한우사육단계 HACCP 교육

한우농가 대상 위생·안전성 교육 실시

한우자조금은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을 통해 2월부터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사육단계 HACCP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축산물안전성 확보, 고품질 식육 생산체계 확립으로 한우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한우사육단계 HACCP 지정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이다. 한우자조금은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 교육일정 및 수료인원

교육일자	교육장소	수료인원
02.12	남양유업 나주공장	18
02.26	칠곡군농업기술센터	46
03.18	농협 안성교육원	15
03.26	경산시농업기술센터	91
04.02	고창군문화회관	4
04.03	논산계룡축협	3
04.20	장수군농업기술센터	113
05.06	하동군농업인회관	50
05.07	고흥군농업기술센터	70
05.10,13	정읍시청	72
05.28	제주시농업기술센터	7
	합 계	489
6.4	천안시농업기술센터	
6.15	괴산증평축협	
7.23	제천농업기술센터	
8.13	상주농업기술센터	
8.18	원주중소기업센터	
8.26	농협안성교육원	
10.29	광주중소기업센터	
11.12	농협안성교육원	

시군지역 소비홍보

남해 | '남해 보물섬 마늘축제' 서 한우고기 시식회

한우자조금은 5월 24일 경남 남해군에서 개최된 '보물섬 마늘축제'에 한우 홍보를 위한 시식회에 후원했다. 전국한우협회, 전국한우협회 경남도지회, 남해군지부는 마늘축제를 찾은 경남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우고기 홍보와 시식회를 진행했다.



단양 | 한우불고기로 '단양 철쭉제' 참가자 입맛 잡아

전국한우협회 충북도지회와 단양군지부 회원 및 한우농가는 5월 26일과 27일 단양군에서 개최하는 '철쭉제'에 참가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우불고기 시식회를 열어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강릉 | '강릉 단오제' 통해 한우고기 참 맛 알려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와 강릉시지부는 '강릉 단오제' 행사에 한우불고기 시식회를 마련해 한우를 홍보했다. 5월 27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 강릉시민 및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한우불고기 시식회를 통해 한우의 뛰어난 맛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소비자 대상 홍보교육

부산지역 소비자 '안전하고 우수한 한우' 이해도 높여

전국한우협회 부산·울산·경남도지회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올 해 처음 '소비자 대상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정호영 경남도지회장은 주부교실중앙회 부산지부 소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육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한우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설명했다.





청소년 한우 맛체험

“한우고기 맛도 영양도 만점” 청소년 한우 맛체험 전국 실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청소년 한우 맛체험’ 행사가 5~6월 중에 진행되었다. 전국한우협회 각 도지회와 시군지부는 선정된 학교를 방문해 급식에 우리 한우 사용을 권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표〉 청소년 한우체험 현황

날짜	지역	대상학교	인원수	날짜	지역	대상학교	인원수
5.21	경북 대구	대봉초교, 월서초교, 신기중, 서평초교, 성보재활원	4270	6.4	전남 광주	광주운남고등학교	1272
5.22	경북 대구	북대구초교	1200	6.5	강원 춘천	남춘천여중	1250
5.25	경북 대구	사대부설초교	830	6.8	경북 포항	오천중학교	1714
5.26	전남 순천	순천효산고등학교	946	6.19	전남 광주	광주동아여중 고등학교	2538
6.1	경북 대구	논공중학교	530	6.22	강원 원주	원주고등학교	1250
6.2	전남 광주	광주보문고등학교	1356	6.25	경북 포항	창포중학교	1299
6.4	충북 옥천	죽향초, 군남초, 동이초, 우산분교, 안남초, 청성초, 청산초, 이원초, 지탄분교, 대성초, 군서초, 안내초, 중약초	1920				



순천 효산고등학교



광주 보문고등학교



대구 논공중학교



대구 서평초등학교



남춘천 여자중학교



광주 운남고등학교

쇠고기 이력추적제 6.22일부터 전면시행 사육단계 이력관리 주의사항

〈편집부〉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6.22.부터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소 등은 거래나 도축이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라 한우농가들이 점검할 사항을 알아본다.

- 기존소는 2009. 6. 21일까지 전산등록 및 귀표부착완료
 - 귀표가 부착되지 않고 전산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거래 및 도축 금지
- 송아지가 태어나면 30일 이내에 출생신고
- 출생신고가 끝나면 30일 이내에 귀표 부착
 - 귀표부착은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여 지정한 전국 135개

위탁기관에 의뢰시 귀표를 부착하여 주며, 부착된 귀표가 탈락시 재부착용 귀표를 동일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기재해 재부착해야 한다.

- 소를 사고팔거나 폐사시 30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관에 신고
- 소의 신고내용에 변경사항 발생시 농림수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로 신고
 -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으로 신고
- 귀표 위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금지
 - 귀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떼어낸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

쇠고기 이력추적제 Q & A

● 도축금지대상 소(귀표가 없거나 훼손)가 도축장에 출하할 경우

A 귀표가 없거나 훼손되어 도축금지대상 소를 출하하면 해당 시·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의 소유자는 도축이 금지되어 농가로 반송되는 소에 대해 거주지 소재 위탁기관에 “출생등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귀표부탁 및 전산등록을 마치고 도축을 다시 의뢰해야 한다.

● 기 도축된 소의 귀표를 부착하여 도축장에 출하한 경우

A 도축이된 소의 개체식별대장 등록여부 확인과정에서 기 도축된 소로 확인된 경우 등급판정사는 해당소에 대해 DNA 동일성 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 또는 등급판정신청서에 “이중등록”으로 처리하고, 해당 시·도는 이중등록된 소의 소유자 농가 등에 대해 귀표 위변조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실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 도축장 출하후에 장착된 귀표가 좌·우 상이한 경우

A 좌·우측이 상이한 경우 둘 중 한 개라도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가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또는 개체식별확인증명서 등에 기재된 번호와 일치하면 해당 개체식별번호에 대해서는 도축할 수 있다.

● 소의 좌측 또는 우측 1곳에만 귀표가 부착된 경우

A 소의 귀에는 동일한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귀표가 좌·우에 2조 부착을 원칙으로 하나 1조만 부착하여도 개체식별번호가 확인이 가능하고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등과 일치, 전산에 동일한 내용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정한다. 또한 기존소 신고대상 축의 경우에는 과거소 정책사업(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축공제사업, 소브루셀라병검사용

귀표 등)으로 1조만 부착되어 있다.

● 귀표가 미부착되었지만, 소 운송기사 등이 소지한 경우

A 소에 귀표가 미부착 된 경우에는 개체식별확인인 불가하므로 양도·양수·도축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운송기사는 소의 귀표를 소지할 수 없으며 귀표를 소유하여 귀표를 부착할 수 있는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 만이 귀표를 보유할 수 있다.

● 소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등의 소유자와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된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A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발급을 소의 소유자 명의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도·양수신고 미이행 등으로 소유자명이 불일치 할 수 있으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서 정한 도축금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귀표가 부착되고 전산등록이 되어 있으며 도축은 가능하나 향후 양도·양수 등의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종소유자 정보를 일치하는것이 바람직하다.

※ 소의 개체식별번호와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등에 기재된 개체식별번호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도축이 가능함.

● 출하된 소의 사육월령과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월령이 차이 날 경우

A 해당 소의 소유자는 도축장 출하전에 소의 월령(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불일치 할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브루셀라병검사 증명서를 재발급 받거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에서 변경신고를 통하여 변경하여 일치하여야 한다.



한우자조금 애독자 코너



“한우고기의 진짜 이름을 찾아주세요”

한우사골, 꼬리, 우족, 사태, 우둔, 설도 등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한우 부위들, 하지만 부산물이나 비선호부위로 불려왔습니다.

이번호 한우자조금에서는 업계에서 ‘부산물’, ‘비선호’ 부위로 불려왔던 한우부위를 대체할 수 있는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한우 한 마리 한 마리를 손수 길러주신 한우농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부산물’과 ‘비선호’ 부위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세요. 채택된 분들께는 송아지 설사 예방약을 보내 드립니다.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 www.ihanwoo.org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www.hanwooboard.or.kr

★ 애독자 코너를 7월 10일까지 한달 간 연장합니다.



전국 한우像 순례④



정읍 산외마을 한우식당단지에서 약 1Km 정도의 거리에 건설된 삼진강수력발전소(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삼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읍 산외마을에 기증한 한우상이다. 2007년 10월 20일에 준공되었으며 S디자인 송기선씨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우직하면서도 매우 순하게 생긴 한우가 여유롭게 주위를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 우리 가까이 있는 한우의 친근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여름철 한우가격 전망 “맑음”

올 여름에는 한우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원산지 표시제의 영향으로 한우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환율 상승으로 쇠고기 수입 물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

6월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의 '6~8월 한우 산지가격 전망'에 따르면 6~8월 한우 전국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4~6%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수소 가격은 410만~420만 원을 유지해 전년 대비 3.9% 상승할 전망이다. 암소

의 경우 상승폭이 더 클 전망이다. 암소 한 마리의 산지가격은 495만~505만 원을 유지해 6.6% 상승할 전망이다.

한우 가격 상승세가 전망되는 것은 수입량 감소와 한우 소비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4월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반면 원산지 표시제와 저가 정육식당의 증가로 한우고기 수요는 증가했다.



천상 천하 한우 득존!

4800만의 마음이 우리 한우를 키웁니다.

- 한우는 우리 민족 정서에 배어있는 민족문화 유산입니다.
- 단순한 고기산업에서 한민족의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국가·지방 행사에 참여하여 문화로 뿌리 내리겠습니다.
- 한우농가 뿐만 아니라 국민(소비자)들이 키워가는 산업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 항상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한우산업을 이끌어 갑시다.



한우 홍보대사 최 불 암